

상월결사

삼보사찰 천리순례

어떻게 걸어야 할까

우리가 시작한 공부
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듯
한 걸음 한 걸음
오늘을 걷는 것만으로 내일이 보인다면
그 길이 모두의 불국지리라

내일이 오늘의 숙제였듯이
남아 있는 길은 모두의 길
어떻게 걸어야 할까
아프고 아픈 오늘과 알 수 없는 내일을
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

佛·法·僧 삼보의 불국성지가
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
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세상에 알려
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
새벽을 본다
내딛는 걸음에 한 생각 또 없다는
걷는다

글·사진=박재완 기자